



달



김정자
본지 논설위원

‘월인천강지곡’ 만한 멋진 시 제목이 있을까.

드넓은 바다, 호수, 강, 우물, 아니 조그만 물웅덩이에도 달은 골고루 그 모습을 하나씩 던지고 있다는 것이니, 우선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부터 장엄하고 아름답다.

차고 이지리짐을 반복하며 변화 무쌍한 세상사를 사람들에게 은근히 가르치고, 천강에 그 모습을 고루 비춤으로써 차별 없는 세상을 보여주려는 달은 그 상징하는바 또한 적지 않다. 계절의 고비마다 만월을 큰 명월로 삼았던 조상님들의 정서가 이해될 직하지 않는가. 세종대왕과 그 아들 세조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에 ‘월인(月印)’이란 제목을 부친 것에서도 달에 대한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연중 가장 투명하게 밝아 보이는 보름달은 추석 달이어서 우리는 추석을 가장 큰 명절로 친다.

하지만 그 추석 달을 받아들이는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예와 같지 않다. 아직도 고향을 찾고 일가친척과 모여 추석 달을 즐기는 이들이 없지 않으나, 이런 만남의 추석이 아닌 단절의 추석으로 속속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물과 떡값 등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휴양지로 떠나거나 추석 손님을 아예 사절한다는 웃지 못할 이유도 있고, 모처럼 쉬는 연휴에 힘겨운 손님접대를 피하고 싶다는 이유도 있다.

하긴 ‘이래야만 한다’는 영원히 지켜져야 할 습속이란 것이 있을 리 없다. 추석명절 자체가 농경시대의 유품이므로 따스했던 그 시절, 만남의 인정을 마냥 그리워 할 일도 아니다.

그렇다 해도 달은 일천 강에 그림자 드리우고 우리를 마음에도 여전히 그 빛을 던지고 있음이 신비하지 않은가.

스님과 목사의 죽음 초월한우정



간암으로 투병하다 8월 6일 입적한 광주 중심사 주지 일철 스님과 강진남녘 교회 임의진 목사의 종교와 나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한 진한 우정을 담은 음반 ‘산’이 나왔다. 일철 스님이 열었던 ‘무등산 풍경소리’ 음악회에서 임 목사가 사회를 맡는 등 우정을 과시하던 두 종교인. 임 목사는 도반을 살려야한다는 입념으로 음반을 기획했다. 음반 발매 며칠 전 스님이 먼 길을 떠나 ‘산’은 추모음반이 됐지만, 임 목사가 일철스님을 위해 직접 부른 노래만은 남아있다.

장군속미

부산지 관제단체 조직 개입 의혹



경부고속철도와 관련, 부산시가 관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관제단체 구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9월 2일 기자회견에서 “고속철도 조기 개통을 위한 범시민추진협의회”는 부산시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관제단체들을 중심으로 만든 단체”라고 폭로했다. 단체들은 3일 열린 △안상영 부산시장의 사과 △관련단체 해체 등을 요구했다.

만남은 설레임으로부터 시작되어 진한 아쉬움으로 남아야 제 맛이다. 설레임, 두근거림이 없는 만남이 어디 제대로 된 만남이겠는가. 어릴 적 손잡고 기다리던, 가슴 깊은 설레임으로 맞이했던 것이 추억이었다. ‘더도 달도 없이 한 가위 같기만 하라’던 말은 그러한 추석을 잘 표현하고 있다.

내 또래의 육촌형제는 20여명이 있었는데, 추석날 아침 제사가 시작되면 모두들 머리 숙인 제사상 위에 올라 배를 차지할 생각뿐이었다. 5년 짙을 하고 음복을 하는지, 아니면 7년 짙을 하고 나서 음복을 하는지에 대하여 큰집으로 가는 동안 서로 다른 학설을 주장하곤 했다. 그리고 큰할아버지께서 ‘이제 음복들 하세요’ 하고 말씀하시면 모두 단거리 주자가 되어 배를 집기 위해 달려 나갔곤 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우리들은 두 신세로 확연히 달라진곤 했다. ‘배를 들고 의기양양해서 걷는 사람’ 그리고 ‘형이 한입만을 외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배를 차지하기 위해 뛰어 나가기가 어색할 나이쯤 되면 형이 들었고, 그렇게 형이 들어도 추석을 기다리는 마음엔 여전히 설레임이 있어 좋았다.

‘벌초대행 1기당 ○만원’ ‘제사음식 대행 1기당 ○만원’이란 문구의 플래카드를 이젠 전



불자 세상보기

김방봉
보조사상 연구원 선임연구원

추석단상

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조상의 산소를 찾아 벌초하는 마음, 음식을 장만하며 조상님의 은덕에 감사하는 마음, 온 가족이 고향에 모여 훈훈한 정을 나누는 모습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벌초를 대행하고, 차례상을 맞추어 오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콘도나 해외에서 차례를 지내는가 하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한다.

일부에선 추석이 연휴의 개념으로 변해가고 있다. 올해 추석연휴 시작인 13일과 14일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는 이미 동이 났다고 한

다. 유럽 일본 중국 노선은 최고 113%에 달했다. 이처럼 연휴를 즐기 위해 차례를 추석 전이나 다음주 일요일에 지내기도 하는데, 그것을 ‘샌드위치 차례’라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아마도 ‘제사 대행업체’ ‘성묘 대행업체’도 수년 내에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같은 시대에 누가 그들을 탓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이자, 변화의 흐름에 순응하는 자들이고, 합리적으로 앞서나가는 자들이네. 그러나 그들에겐 잃어버린 것이 있다. 모든 삶이 있는 것들이 받는 중에

간직하고 있는 회귀본능 말이다. ‘삶의 놀이’는 인연이 모여 있는 모습으로 잠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다시 우리가 돌아 가야 할 곳은 흙이다. 조상은 사라진 자가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삶의 놀이’를 하고 간 자들이며, 또 우리가 다시 가야 할 자리이다. ‘고향과 조상을 잃은 자’들이야말로 어쩌면 돌아갈 곳을 잃은 불쌍한 자들이다.

‘기다림을 즐길 수 있는 자’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귀경길이 길면 어쩌랴! 그 긴 시간을 설레임으로 충만시킬 수 있다면, 그 옛날 마을운동회가 끝나고 밝은 달밤에 마을 뒷산에서 가슴 뭉클거리며 만났던 감동이 갑순이도 생각하면서, 참외서리 덮여서라다 불잡혀 혼이 났던 추억도 되새기면서, 밝은 달 쳐다보고 가다보면 고향에 다다르지 않겠는가.

차창 속에 비친 달이 아름다우면, 문득 ‘나의 진자 고향은 어디이지?’ 하고 물어볼때마다 그런 또 불자(佛子)다운 낭만이 아니겠는가. 우리 불자들이라도 참 마음의 고향을 설레임으로 그리워하고 있다면, 남들이야 달나라에 가서 제사를 지낸들.

본란(本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통합신도회 정체성 확립위한 2차 실무자 워크숍



8월 29-30일 광주 동학사에서 열린 '통합신도회 정체성 확립을 위한 2차 실무자 워크숍' 장면.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체계 필요

통합 신도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조직 체계는 어떤 방향에 따라 어떤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중앙 조직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통합신도회 정체성 확립을 위한 2차 실무자 워크숍이 8월 29-30일 광주 동학사에서 열렸다. 김진관 중앙신도회 부회장, 손안식 전국신도회 부회장과 소속 단체 실무자, 정책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워크숍에서는 통합신도회의 조직 체계 및 발전 전망을 놓고 열린 토론이 벌어졌다. (정리=권형진 기자)

교대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것은 곧 불자들이 불자다워지는 것을 말한다. 불자들이 불자다워진다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불자들 일상의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자로서 기본적인 계에 입각해 출발할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계의 정신에 기반한 불자생활 윤리를 제정하고 실천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신도회 조직체계 및 발전방향

(이상근/중앙신도회 총무부장)

교육, 정책연구 등 '센터' 기능 갖춰야

신도회는 신도 대중을 교육·조직할 뿐만 아니라 그 조직 상호간의 관계를 체계화하고 신도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신도 조직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고 통합 신도회 역시 21세기 지식문화·정보사회에 맞게 조직 체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먼저 조직 체계의 방향과 관련해 그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다. 당연히 생활 근거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신앙을 고취하는 활동을 하고 실제 신도들의 활동은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화 청량사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참여 구조의 확대 역시 필요한데, 교구신도회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도 말사 신도회가 중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식문화·정보사회에 맞게 기존 신도 조직뿐 아니라 NGO, 온라인 모임, 직장·직능 등을 포괄하는 중층적·다원적·포괄적 조직체계를 갖춰야 한다.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임동현/중앙신도회 기획실장)

생활윤리 제정해 실천운동 전개

중앙신도회는 아직도 이념적 표류를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 형태에 대해서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문제를 제도의 문제로 접근해온 방식 탓이다. 제도는 문화를 담은 그릇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지향할 것인가를 세우고 그에 걸맞은 제도화가 고민되어야 한다.

지난 98년, 99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불교의, 조계종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본질은 불교의, 조계종의 정체성 위기라는 진단도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조계종, 나아가 한국불교 정체성 위기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다른 말로 한국불교가, 조계종이 불교답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통합신도회의 지향점은 바로 여기에 뒀다 한다. 한국불교의 불

이러한 변화를 통해 통합 신도회는 신도를 조직, 교육하고 정책을 연구·개발해 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신도 정책의 핵심과 개선방향

(박용규/포교원 신도과장)

기능주의적 접근 재고

현재 종단에서는 △신도 기본교육을 중심으로 한 신행체계화 △신도 교육을 기본으로 한 신도 조직화 △조직화된 신도역량의 대 사회적 역할 수행 등 조직체계화의 문제를 신도 정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행 신도모임에 나타난 신도 정책의 핵심과 개선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출가자와 재가신도의 개념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흔히 사부대중 공동체라고 했을 때 ‘4분의 3’이라고 분리해서 다분히 기능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출·재가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재가주의적 사고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신도 정책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과연 현재의 신도회 조직체계의 편제가 오늘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신도 조직의 형태가 신도 조직화와 활동을 진작시키고 있는가,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서 보다 다양한 조직을 포함하는 형태로 바뀌어나가야 할 것이다.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

수신토종오가피 5개 신문 히트상품 선정!

소비자들이 먼저 확인한 우수한 품질,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국내 최대 오가피 제재사 성광수

- ★ 일간스포츠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 한국일보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 경향신문 2003 경향히트상품 선정
- ★ 서울경제신문 2003 서경벤처히트상품 선정
- ★ 스포츠 데일리 2003 컷브랜드 대상 선정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는 다름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신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국내 최대 오가피 제재사 성광수씨가 직접 농장견학회 및 재배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의 : 저의 수신토종오가피가 유명해지자 원료를 성광수씨로부터 구매해 만들었다고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속지마십시오! 국내 최대 오가피 제재사 성광수씨가 재배한 토종오가피 원료는 전량 수신토종 오가피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5대 히트상품 선정 기념, 신학순 고객사은대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02)454-3733

제3기 이혼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가 교육생 모집

이혼의 원인은 작은 견해차부터 여러 가지 심각한 갈등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지만, 평등한 부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이뤄지는 잘못된 대화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긍정적 언어표현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부부간에 인격체로서의 상호존중을 통해 부부정체성을 확인하여 '이혼'이라는 심각한 폐해를 예방하고, 또한 가족관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일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에 '이혼예방을 위한 전문상담원' 교육을 통해 한 개인으로서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체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더불어 가정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책임 있는 전문상담원이 되어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상담원의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 ◆ 일 시: 2003년 9월 17일(수) ~ 11월 3일 (90시간)
- ◆ 장 소: 연꽃 교육장 (인사동 서거리) ◆ 인 원: 30명(선착순)
- ◆ 문 의: 02-738-5586, 5568 / 상담소: 02)735-0406~7
- ◆ 수강료: 12만원(우리은행 : 098-088769-01-501/한국여성불교연합회)
- ◆ 주 최: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1.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9월 17일	1. 성·가정폭력법 해설	9월 18일	3. 가족구도와 가치변화
	2. 가부장 제도와 여성인권		4. 한국 가족의 원주소
2. 아내 학대 발생과 원인 분석			
9월 22일	5. 가정폭력 배경과 원인	9월 27일	8. 부정적 감정 다루기
	6. 가정폭력		9. 부부의 갈등 및 위도, 이혼과정상담
9월 27일	7. 가정폭력 상담의 전반적 이해	10월 2일	10. 여성위식 변화로 이뤄진 가정
	3. 현대사회의 변화와 가정 위기		
10월 2일	11. 여성인권과 여성운동	10월 4일	14. 이혼의 실태와 제반문제
	12. 현대사회의 변화와 가정문제		15.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
10월 11일	13. 왜! 이혼가정이 늘어나는가!	10월 11일	16. 이혼가정의 자녀생활과 실태
	4. 건강한 가족제도 및 치료상담		
10월 18일	19. 건강한 가족제도	10월 13일	17. 정신적 수양을 위한 음악치료
	20. 성폭력 상담의 이론과 실제		18. 진화상담의 기법과 운영사례
10월 21일	21. 가족문제 상담, 성폭력 상담사례	10월 28일	22. 부부대화법 및 가족치료
	5. 가족문제 상담 및 역할연습		
10월 27일	23. 결혼에 나타난 상담	11월 1일	26. 가정폭력에 대한 핵심적 기법
	24. 상담자의 자질과 역할		27. 가족치료의 통합적 접근
10월 31일	25. 상담사례를 통한 역할연습	11월 3일	28. 가정폭력 비디오 및 수료식

- 1. 본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인정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자격을 수여함.
- 2. 본 행복한가정상담소에서 필요시 상담활동(봉사·유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